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63호

서기 2002년 4월 3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더 한다 덜 한다도 없이 관해야

병의 근원을 모를 때 답답해

문 저는 강아지를 치료하는 수의사입니다. 근데 항상 저 스스로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병의 근원이나 치료법을 정확히 모르면서 진료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전 상태를 속이고 있는 건지요.

심지어는 강아지를 편안히 보내주지 않고 약을 발라서 마지막까지 더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수도를 해서 의통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스님은 제 심정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답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자유인의 삶을 사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 뜻을 알 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축생들도 인간이 되려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 능력을 감탄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마음으로 세우고 자꾸 지혜를 닦는 겁니다.

우리는 마참가지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얽히고 설켜 버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전자에 하던 습, 인간이 돼 가지고도 전자에 살던 습을 놓지 못한다면 다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비스럽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걸 본다고도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은 걸 본다고도 낮다고 생각하지 말라. 미운 걸 본다고도 미다 생각하지 말고, 예쁘고 잘 생겼다 해서 감탄하지 말라.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만백성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틀을 잘 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틀을 잘해 가지고 나와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틀을 잘 짚어서 이끌어줄 수 있는 보살과 더불어 법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저 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파 보기도 하고 의사를 불러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안 나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의사가 제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의사가 약사를 하시면서 보이는 물질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정신계와 물질계를 합류화 시켜나가면서 자유롭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디다.

어떨 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다른 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소소한 것은 좀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결론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관하는 걸 가르치면서, 음식도 비싸야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싸도 그 사람한테 참 좋은 게 있지요. 막 먹어도 괜찮고 신선하고 비싸지 않으니깐 좋기도 하고 비싼 것이 간혹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앓던 병, 이름도 모르던 병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름 없는 걸 먹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의사가 모두 한 틀에 끼어, 한의원은 한의원대로 양의원은 양의원대로 또, 수의사는 수의사대로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약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도 쓰이게 되고, 어디에 가도 없애지지 않고,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고 또 가지면 그냥 자기 것이 되고 그런 거죠.

나부터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발견한다면 업식으로 태어난 중생들을, 몸 속의 털구멍을 통해서 드나드는 것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드나들게 만들어 우리 삶의 보람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차 지혜가 넓어져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 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력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고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전력이 흐르고 있으니 불만 켜면 될 것을 모르니까 어둠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본래불... 자성은 본래 불(佛)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말씀해 주시자 '자성이 본래 일체를 다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구요. 자성은 본래 생명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움직여짐 없이 만법을 능히 내고 들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어떻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이 네 마디가 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생명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움직여짐 없이 만법을 능히 내고 들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거기에서 홍인대사가 발우를 내 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붙리면 빼앗길 테니까, 그때서부터 발우를 전달하지 않기로 법을 정하고 혜능 선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아예 발중에 배를 태워 건너 보낸 거죠.

나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은 책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책을 볼 때 어떻게들 보십니까? 내가 글씨만 보고 글씨는 나를 보고 아주 작공이 되어 서로 죽겠네니 살겠네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공이 될 수 있는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효도를 못하는 여러분과 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 없이... 책도 그렇고. 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삼 년 이든 사 년이든 자기가 주장자를 쥔 때까지는 경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을 달달달 외우다 보면 까불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딱 세워놓고 경거망동 하게 돼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혀서 명경이 청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 낫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낫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고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세워놓은 부처님, 아주 존수하시고 참 멋지죠? 그런데 멋진 부처님이라고 세워 놓은 건 부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융합이 돼야 부처예요. 여러분이 끼지 않고 형상만 동그마니 있으면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내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거죠. 저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픔과도 둘이 아니요, 내 자리와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까닭)에 자성은 컴컴하다 밝다는 말이 소용이 없습디다. 자성은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낮에 부산 갔다 왔다면 지금 눈을 감고도 부산 갔다 온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는 놈이, 그놈이 자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으세

전생에 살던 습 놓지 못하면 다시 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요. 믿고 생각을 좋게 해서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이다 부처님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문 영혼이 병든 사람도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저건 할 수 없다, 저건 할 수 있다, 저건 작다, 저건 크다 하고 이유가 붙고 습이 붙어 돌아가기 때문인디다.

그런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일체 만물만생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말을 안 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풍 썩은 풍 썩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자 집합소인데도, 항상 내가 산다고 하면서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그게 작용을 해 줄 텐데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 대뇌로 통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통신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

산다면 한 덩어리가 사는데, 혼자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흠뻑물을 맑은 물로 바꿔 쓸 수 있고, 모든 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대처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50%의 정신세계를 아예 무시하고 가기 때문이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썩만 자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에누리 가 없어요. 입력돼서 바로 현실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현실로 나오는 거를 잘된 일이라든 감상하게 놓고, 잘 안됐으면 '너만 이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거기다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앞서의 입력했던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되면, 새로이 입력이 된 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터럭 하나 좀 맡겨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 봐요. 죽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할 일이지 왜 그렇게 끄달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이 험어졌으면 자기를 형성시켜서 끌고 가는 주인이 고치는 데 왜 집이 걱정을 합니까? 안 그래요? 집이 험어졌으면 집을 지은 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하는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 주인인지, 진정 누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산 기도에 대해서

문 홈페이지 친견실 법문을 통해 매 일 승수를 얻는 마음입니다. 산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여하게 자신을 찾으며 살면서도, 떼어 놓는 사이 없이 밭길을 때어놓으면서도 무엇을 따로 찾고 해갈을 하고 있으니 난 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이나 밥이나 해놓고 이 신 저 신 찾아 다니며 산다면 요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누가 되는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고초를 받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서 해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물을 떠놓고 기도 드린다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부처님을 집안에만 모셔놓고선 정한수 떠놓고 빌던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또 자기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풀리지 않는 그 고초는, 한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곤경을 당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게다가 무슨 신, 무슨 신 끌어다 대기만 했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을 못했으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온통 마음으로 만들어서 해놓고서 해결을 못하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연성이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얽히고 설킨 인과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기복으로 정성을 들이면 사람의 자손들이, 자손들이 부모가 하던 것처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처럼 한다고 자부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복으로 지극하게 다니던 사람들의 자손들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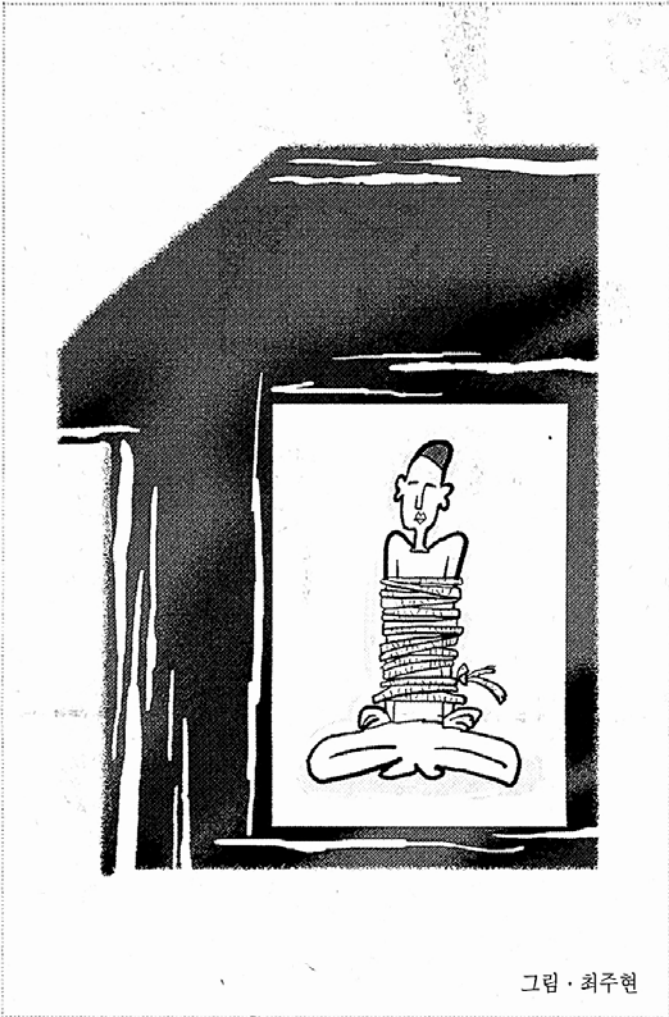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리 아픈 데는 다리를 낮게 하는 약이 나와 거고, 눈이 아픈 데는 눈을 낮게 하는 약이 나와 거고, 배가 아프면 배를 아프지 않게 하는 약이 나와 거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약으로 보조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영약을 있게 한다든가 또는 보조를 해서 환경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의사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오래도록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죽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촉각으로부터, 시각으로부터, 후각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갖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부터 알고

어떻게 본래 부처인지

문 어느 큰스님 법문에 보면 '인간은 본래 일체를 초월하고 일체를 구족(具足)한 절대적 존재이니 이것을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합니다. 이 본래시불을 중생으로 착각하여 중생이라 가정하며 중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이 망견을 버리고 본래불(本來佛)인 인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인간회복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따라 귀신도 선신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교의 목적이 중생을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래 부처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래 부처라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각해 봅시다. 전력이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

세우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라고 세울 게 없는 게 부처라고 했으니 삼천대천세계에 꼭 찬 겁니다. 육조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 불 동산에 열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같은 거죠. 불 동산에 꽃이 피어서 향기롭게 두루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와 같고요. 안

가짜로 안목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통(苦)가 아니다** 18면으로 계속

A5신 288쪽
값 6,000원
이시이문

